

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

[요 1장 12~13절]

♣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최초 에베레스트 등반 성공

‘셰르파’ 텐징 노르가이 와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합니다.

(셰르파)란 등반대의 길 안내나 짐 운반을 하는 티베트계 नेपाल인을 말합니다.

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오른 소감을 묻자

텐징은 ‘내가 할 말을 정상에 두고 내려 왔기에 할말이 없습니다’ 라고 합니다.

그렇다면 정상에 오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자

‘나는 적을 물리치는 기력이 아니라 어머니 무릎에 오르는 아이의 사랑을 갖고 산을 올랐습니다.

- 그것은 난생 처음 보는 장관이었다. 나는 산을 사랑했고, 에베레스트를 사랑했다.

- 에베레스트에 두 번째로 올랐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나는 앞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 것이다.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. 그것이 전부다

♣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일치를 경험하였습니다. [출3장 1~5절]

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, 연기도 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.

‘도깨비불인가’ ‘이 기이한 현상은 무엇인가’

모세는 상식과 불일치하는 장면을 보고, 도망가지 않고 불로 나아갑니다.

그런데 그 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.

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출애굽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.

**나의 말은 불일치를 경험한 그 산에 묻어 두고
산에서 내려와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다시 태어납니다.**

1.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?

- 은혜의 성령님을 (경험)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

- 흠으로 돌아갈 존재가 하늘로 돌아갈 존재가 되는 거룩한 (불일치)를 경험한 사람입니다.

- 예수 그리스도의 (보혈의 능력) 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

주님의 보혈이 죄인의 죄를 단번에 사하는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.

이제 우리는, 흠속에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

그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.

이제부터 자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.

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

옛 사람으로 했던 생각과 말,

교회라고 하는 산 위에 남겨두어야 합니다.

♣ 바울도 거룩한 불일치를 경험했습니다. [고후 12: 2~4]

2절.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난 모른다. 하나님은 아신다.

-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.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.

3절. 셋째 하늘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.

그 후로 바울은 평생 은혜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.

자신의 말과 생각은 셋째 하늘에 묻어두고,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갑니다.

♣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찾아 읽어봅시다.

바울은 셋째 하늘에 자기 말을 묻어두고, 이 땅에서 한 말은

“ ” 입니다.

여러분은 교회를 통해 불일치를 경험하셨습니까?

어떤 이들은 불일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, 어떤 이들은 불일치 때문에 자신의 말을 그곳에 두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
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?

♣ 거룩한 불일치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?

- (하나님) 이십니다.

내 능력 밖의 일, 내 지식 밖의 일,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?

나랑 똑같으면 그냥 나를 믿지 뭐 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?

♣ 신앙이 무엇일까요?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요? [계14:1]

1) 마치 (산) 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.

2)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?

- (시온산) 에 계십니다.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에 오릅니다.

3) 시온산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? [계14:4]

(능력 있는 사람/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, 땅에 살지만 하늘의 정절을 지키고 산사람)입니다.

4) 그 산은 어떻게 올라갑니까?

- 불일치의 경험 속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향해 올라가는 (사랑) 으로 오릅니다.

신앙은 산책이 아닙니다.

신앙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산을

은혜 성령님이라고 하는 세르파의 인도 없이는 올라 갈 수 없는, 등산과 같습니다.

우리 2023년 하나님의 산, 정상에서 봅시다.

♣ **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?**

-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(저 하늘에서/ 이 땅에서)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.

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.

오늘 여러분은 그 거룩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?

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있습니까?

♣ **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.**

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도망 왔는데, 주님은 다시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. 그러자 제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.

“우리도 _____ 가자”

죽음의 불 못 으로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룩한 경험을 하였습니다.

우리가 그분께 원하는 것은 한 가지
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,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소서
아버지 나를 붙잡히 여겨 주시고
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
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과
거룩한 산을 정복합시다.